

함량미달 종단, 불교 이미지 흐린다

새롭게 생겨나는 종단과 종교법인 중 일부가 비불교적 행위와 재산권 분쟁 등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1년 법인 등록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종교법인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져 불자들에게 피해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종단 구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종단,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종교법인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고 규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에는 26개의 종단이 등록돼 있지만 이외에도 80여개의 종단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불교의 가르침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종단은 유명 종단 또는 사찰의

일부 신생종단, 무속행위·재산권 분쟁 '눈살' 교계-정부 협력 법인등록 검증체계 마련해야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불자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무속 등 불교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해 신도를 끌어들이는 등 순수 불교종단으로 보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관법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한 후 지자체의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더해 법인 재산 분규 등 말썽을 일으키는 종단이 있다. 2001년 경상북도에서 법인허가를 얻은 A종단은 2002년부터 법인 재산을 둘러싼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현재 현재까지 제대로 된 불교행사 한번 열어보지 못했다.

A종단의 종정 측은 "스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스님이 오랫동안 피땀을 흘려 건립한 종단 사찰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하고 있고, 前 총무원장 측은 "법인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이사회를 구성해 법인 재산을 빼내 종단과 법인을 빙 둘러싼 상태로 만들었다"고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교는 커녕,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불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47개 사단법인 74개 외에 얼마나 많은 종교법인이 활동 중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불교계는, 정체불명의 종교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도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뚜렷한 수단조차 제대로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일까. 종단협 김석오 사무차장은 "불교계와 정부의 협력적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함량 미달의 종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들이 법인까지 만들어 활동하며 더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불교적인 종단과 불법법인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용을 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단 등록과 법인 허가에 앞서 문화관광부와 해당 지자체가 종단협에 검증을 부탁하고, 종단협이 지역 사찰, 스님, 불자들과 연계해 이를 검토한다면 비정상적인 종단의 등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단협은 최근 지자체의 이와 같은 요청을 검토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6월25일 열린 삼회향놀이 국제 학술회의 개회식에 참가한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왼쪽 두번째)과 부원장 춘광 스님(왼쪽 첫번째).

"삼회향놀이 시대맞게 정립해야" 천태종-진단전통예술협 국제학술회의

"영산재의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삼회향놀이 고증을 통해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천태종(총무원장 윤덕)과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회장 홍윤식)가 6월 25일 관문사에서 연 불교축제인 삼회향놀이 복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상일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축제의 구조적 특성과 영산재·삼회향놀이' 주제 발표를 통해 "오늘에 전하는 영산재의 예를 보면

기분들은 제의성과 예술성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뒷풀이 형식의 예술성을 갖고 있는 삼회향 놀이가 계승 발전돼 한국 축제문화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문화요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삼회향놀이는 영산재 의식이 끝난 이후 뒷풀이 형식으로 베풀어지는 가무를 결합한 불교적 연희의 한 형식. 해방 후 불교계의 혼란 등으로 인해 삼회향놀이의 명맥은 사실상 끊어졌다. 이에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가 당시 법파와 불교의식에 능통했던 스님들을 초청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하계간부교육

천태종은 제59회 하계 간부교육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총본산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박종(동국대) 교수의 '법화경 방편론', '법화경 비유설화', 김주환(동국대) 교수의 '지구의 변화', 장관석(창주명사합창단 지휘자)씨의 '찬불가 배우기', 교육부장관인 스님의 '계율특강', 인간문화재 신응수씨의 '불교건축특강'이 열린다. 문의 (043)423-7100 김원우 기자

온가족 산사에서 하룻밤 선암사 가족 수련법회

태고보우승가회(회장 호명)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회 산사체험 불자가족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푸른 숲 맑은 마을 부처님 마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법회는 어린이·청소년·성인그룹 등 세대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기존의 수련회 형식을 탈피하고 이들 세대가 함께 수행하는 가족중심의 수련일정으로 짜여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련회는 참가자들이 대중들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만남의 시간과 선암사에 주석했던 역대 고승들의 행적과 일화를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심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암사 주지 금용 스님 특강 등으로 짜여졌다.

또 숲속명상과 잊혀져가고 있는 불교의 전통 참회의식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스님들과 함께 독송하는 연불수행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수행기간의 긴장된 마음을 풀고 가족과 이웃간의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캠프 파이어와 조계산 등산대회도 펼쳐진다. (02) 763-5213

김원우 기자

나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린이유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진각종 예비스승들이 만다라 그리기 체험하고 있다.

진각대 정진실수 교육

진각종 스승양성 교육기관인 진각대학(학장 경정 정사)은 6월 20~24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정진실수' 교육을 실시했다.

진각대학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정진실수 교육은 정진, 종조범이 득경, 실행론 묵독, 만다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매일 오전 4시~오후 9시 정진실수교육에 참가한 진각종 교육부 과장 주원 처무는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열승수행의 참 맛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스스로 신심을 갖고 수행을 다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정진수행 교육에는 보당(사서실), 주원(교육부), 청호(기획실), 해운(문화사회부), 명인(심인중), 정목(경신인당)처무 등 8명이 참여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스님들이 지난 4월 화재로 전소된 낙산사 원통보전 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각종 총무원장 만철,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조계종 총무원장 현고, 낙산사 주지 정념, 총지종 총무원장 우승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단협, 낙산사에 성금 1억원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6월 29일 지난 4월 5일 화재로 전소된 낙산사를 방문,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종단협의회 수석 부회장이인 윤산(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굳은 신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국불교계 모든 종단이 낙산사의 어려움 극복에 함께 해주신 힘이 절로 솟는다"며 "정성을 다해 낙산사를 복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현고 스님

은 "저희 종단의 사찰을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이 시대 명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의미있는 불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낙산사 복구기금 전달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대각종 총무원장 만철,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총지종 총무원장 보승 정사, 진각종 재무원장 증광 정사 등이 참석했다.

글·사진/양양=김원우 기자

진각종 전주에 전라교구청 신설

대전교구청에서 분리

진각종 전라교구청이 신설된다. 진각종 원외회(회장 최정 정사)는 6월 24일 제 238회 원외회를 개최하고 대전교구를 대전과 전라교구로 분리키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대전교구 산하에 소속돼 있는 항수, 관행, 묘향, 보덕, 영광, 불음심인당은 전라교구 소속으로 이관된다.

원외회는 이와 함께 항수심인당(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을 전라

교구청으로 지정하고, 교구청장에는 항수심인당 주교 진성 정사를 6월 25일자로 임명했다.

이로써 진각종 교구는 전라교구가 신설됨에 따라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이어 원외회는 종조범이 자료 연구모임을 새롭게 결성키로 하고 연구위원으로 해인, 지정, 덕정, 일화, 해인, 법경 정사와 김경집, 김지은 연구원을 위촉했다.

김원우기자

태고종 전법사 수계산림 9월5~11일 선암사에서

태고종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17일간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전법사 연수교육 및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설립한다.

올해로 세 번째 설립되는 전법사계 수계산림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신도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남녀 전

법사들이 수행과 교화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확실하게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성직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포교일선에 사설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전법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종단의 포교사와 교인 중에 아직 전법사계를 받지 않은 전법사들이며 1, 2기 전법계를 받은 전법사들도 참석 가능하다. (02) 382-7361 김원우기자

수경사 사태에 대한 사과문

본 재단은 소속 사찰인 수경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사회적 불의를 빚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경사는 1997년 본 재단에 등록된 사찰로, 그동안 언론에 각종 미담이 소개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므로,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허물은 재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오늘의 수경사 사태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정법과 중생을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하고 사회적으로 쏟아진 모든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재단에서는 수경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사찰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경사 사태는 묵묵히 자비행을 실천하며 무연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제방 사찰에게도 적지 않은 누를 끼쳤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해당 사찰의 선량한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5년 6월 29일

재단법인 선학원 임직원 일동

수신토종오기피

亦豊虜犬

禮獻(예향)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영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물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향 禮獻**

제품이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문헌을 통해 오기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기피 예향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수신토종오기피 예향에 있는 오기피 성분은 성황수나무 수신토종오기피와 항암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900분에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토종오기피에서 오기피 예향은 1달에 오직 900만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기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기피만을 원료로 사용하며만듭니다.

수신토종오기피의 지존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신토종오기피 예향에는 복제품을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일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토종오기피 예향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경사 사태에 대한 사과문

본 재단은 소속 사찰인 수경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사회적 불의를 빚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경사는 1997년 본 재단에 등록된 사찰로, 그동안 언론에 각종 미담이 소개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므로,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허물은 재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오늘의 수경사 사태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정법과 중생을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하고 사회적으로 쏟아진 모든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재단에서는 수경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사찰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경사 사태는 묵묵히 자비행을 실천하며 무연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제방 사찰에게도 적지 않은 누를 끼쳤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해당 사찰의 선량한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5년 6월 29일

재단법인 선학원 임직원 일동